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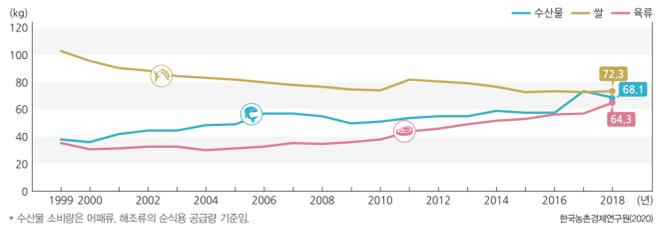
음식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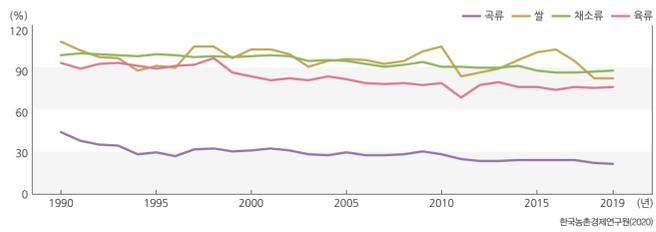
김홍도 「타작」

한민족은 다양하고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 탄화된 곡물 등에서 농경 문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조개무덤 및 낚시 도구 등은 해산물을 채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한민족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류는 쌀이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처럼 쌀은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기 위해 개간과 용수 공급에 힘써 왔다. 고대부터 건설되어온 곳곳의 저수지는 이러한 벼농사의 오랜 전통을 보여준다. 1960-1970년대의 혼분식 장려 운동으로 빵과 면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결과 쌀과 보리 대신 쌀과 밀이 한국인이 주로 소비하는 곡물이 되었다. 특히 밀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한국은 다량의 밀을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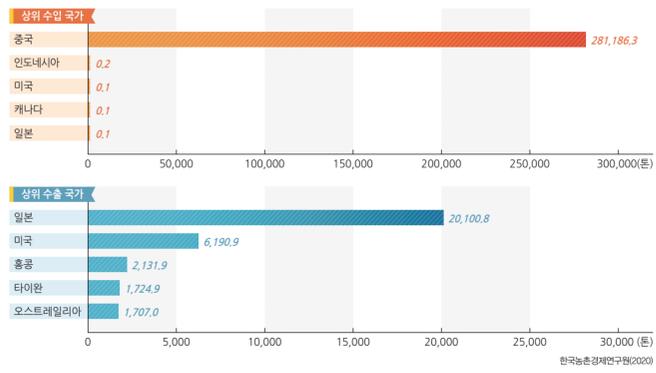
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 추이(1999-2018년)



식량 자급률 변화(1990-2019년)



김치 상위 수입 및 수출(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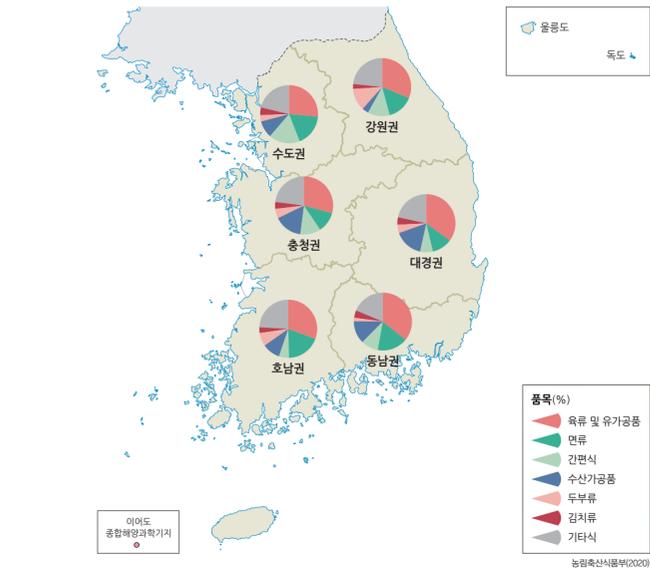


최근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쌀 소비량 또한 감소하는 동시에 잡곡 소비가 증가해 왔다. 주요 식품을 곡류, 채소 및 과일류, 수산물 및 육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대 한국인은 곡류를 점점 덜 소비하는 반면 채소 및 과일류, 수산물 및 육류는 점점 더 소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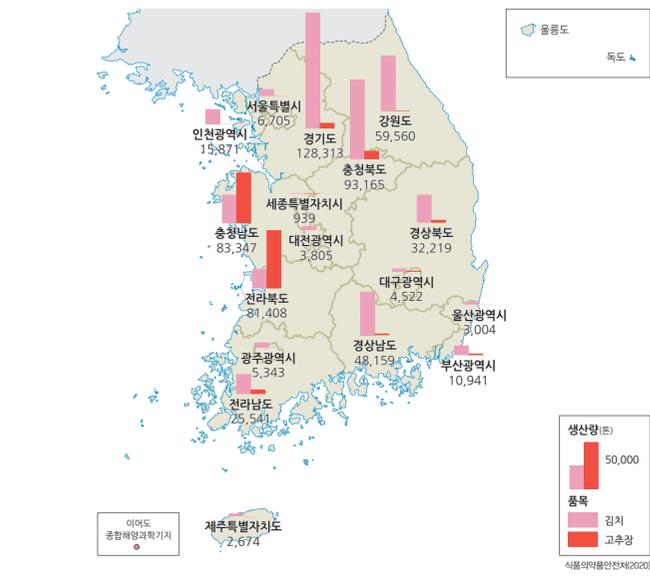
한민족의 음식 문화 특징 중 하나는 발효 식품의 발달이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채소를 발효시켜 저장함으로써 겨울에도 충분한 채소류를 섭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장류 또한 발효 식품의 일종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가장 많이 발효시켜 소비하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두드러지고 외식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김치와 장류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발효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식이 세계 각지에서 각광받으며 김치와 고추장 등 대표적인 발효 식품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가 더불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발효 식품은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음식이 되었다.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는 오랜 역사와 뚜렷한 사계절, 지역의 고유한 음식의 전통이 결합된 결과이다. 한국은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지역별로 혹은 가정별로 매우 독특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이 존재하여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자들이 증가하여 다양한 외국의 음식이 소개되고 판매되고 있다. 또한 외국 식문화를 한국의 식문화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 또한 증가하면서 변형된 한식 문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식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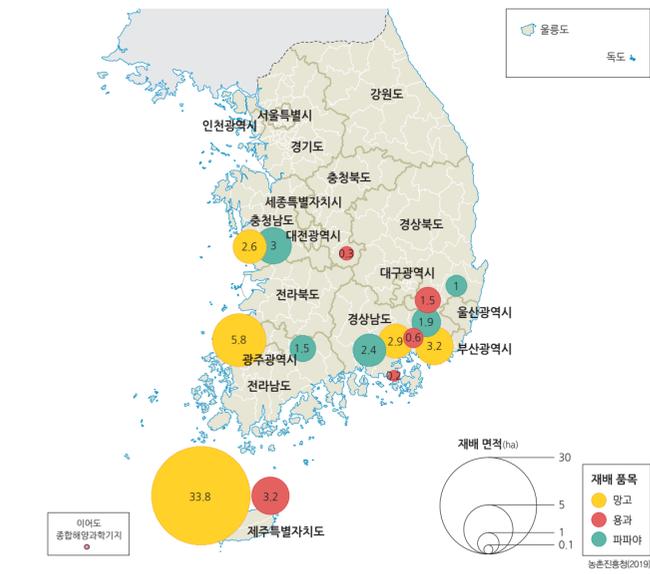
품목별 가공식품 지출액 비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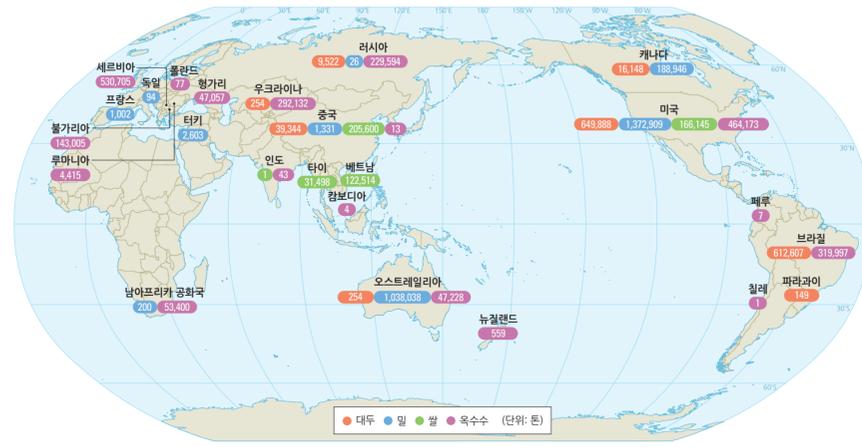
김치 및 고추장 생산량(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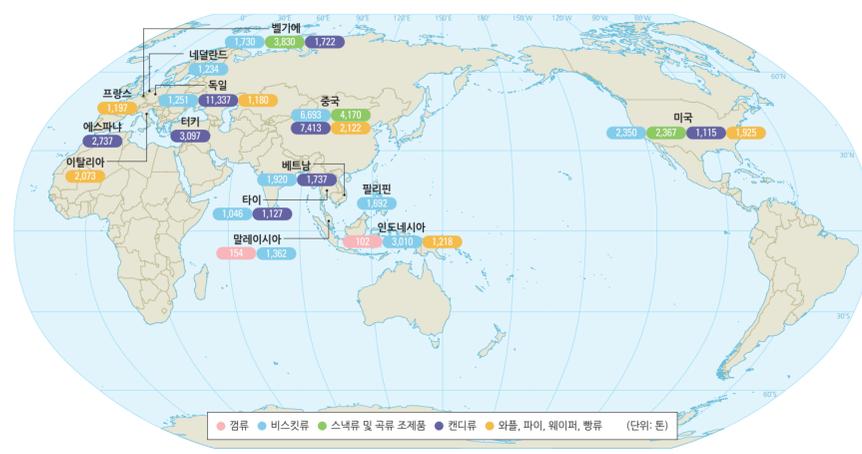
기후 변화와 재배 작물 변화: (아)열대 작물 경작 사례(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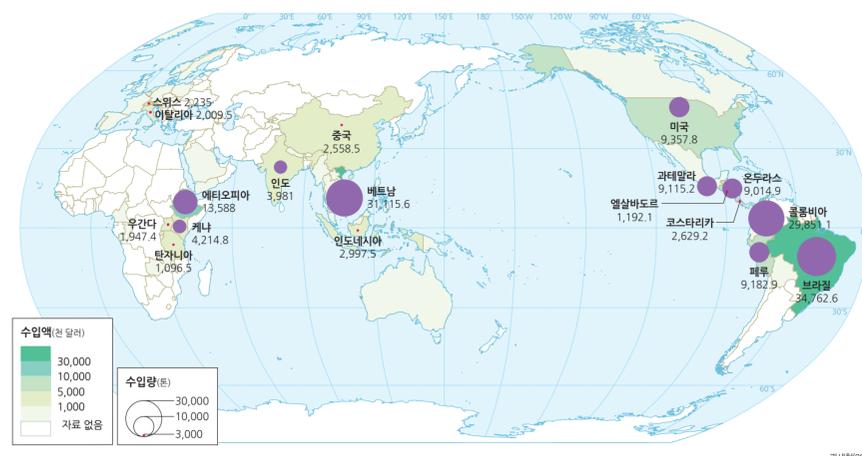
주요 수입 곡류의 원산지(2020년)



주요 수입 과자의 원산지(2020년)



수입 커피의 주요 원산지(2020년)



우리나라는 주시 목적으로 주로 소비되는 농축수산물 및 곡류뿐 아니라 후식 및 간식 등으로 소비되는 과자, 그리고 차와 커피, 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재료 및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곡류의 경우 밀, 옥수수, 콩의 수입이 많다. 식용 밀의 경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로부터 매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사료용 밀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쌀의 경우,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인해 자급이 가능하지만 의무 수입 물량 때문에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어 가공

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두를 비롯한 콩은 미국 및 브라질 등지에서, 옥수수는 세르비아,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 과자류의 경우 빵류 혹은 시리얼로 수입되어 식사 대용으로 소비되기도 하며 주로 후식 및 간식으로 섭취되며, 그 종류에 따라 수입이 특화된 국가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스킷, 스낵, 파이나 빵류 등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과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캔디류의 경우 독일, 에스파냐,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견류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이 두드러진다.



수입 곡류 저장시설



수입 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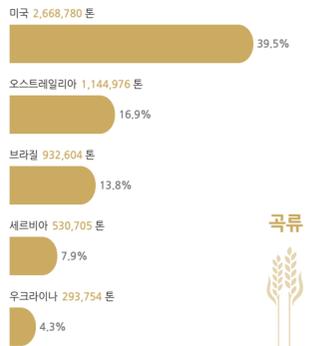


커피

또한 커피 수입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닌 반면,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며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수입량과 수입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과 중남미,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커피 원두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식품 소비 패턴은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며, 매년 많은 양의 농축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한국 내 과일 및 채소, 축산물 및 유제품, 수산물의 꾸준한 소비를 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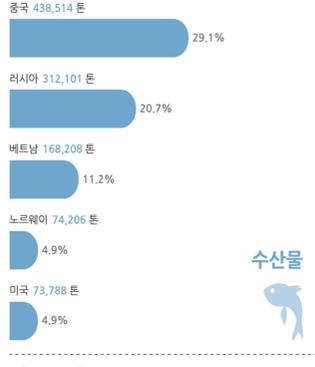
주요 수입 농산물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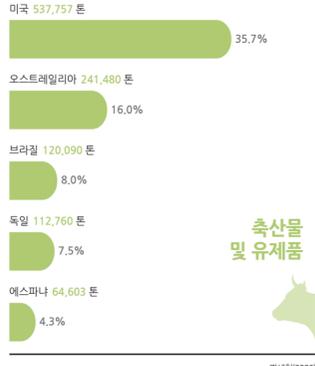
곡류



과일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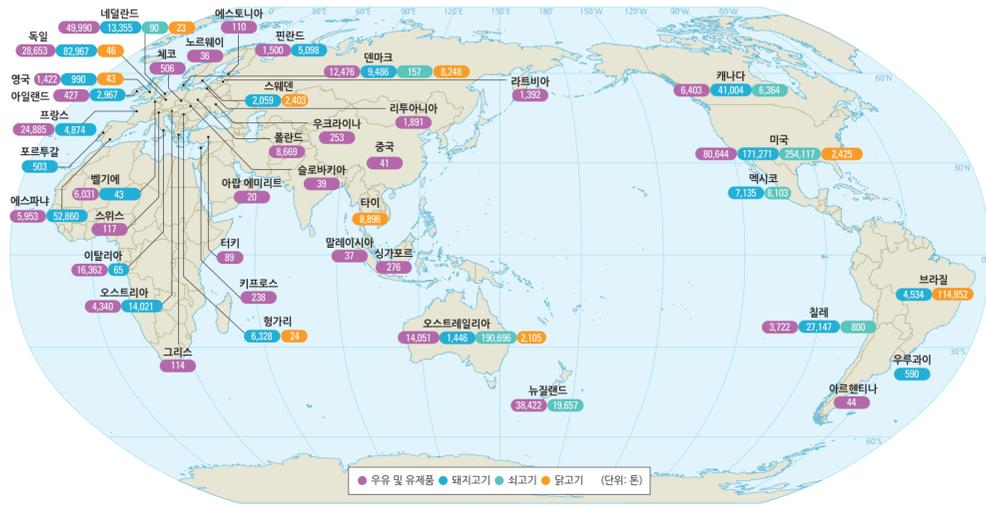


축산물 및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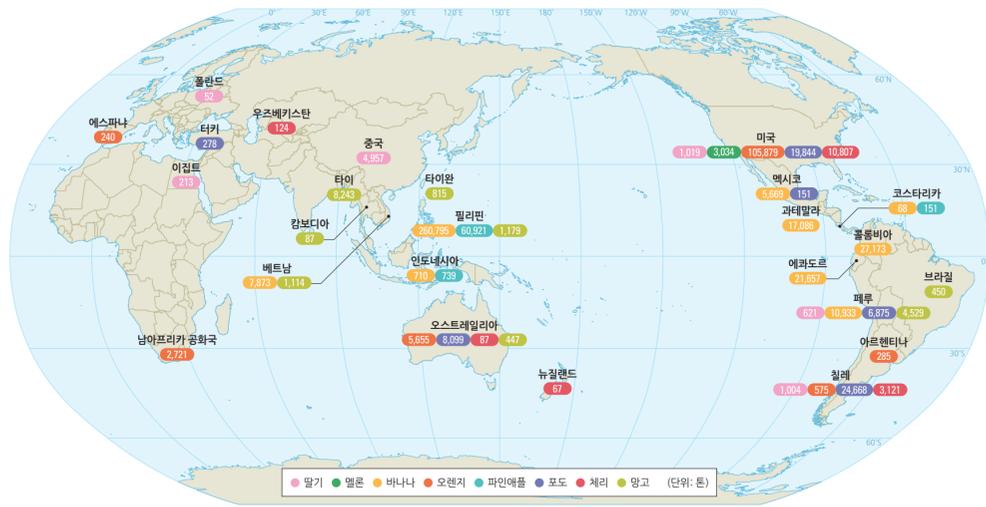
특히 최근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협정 등으로 해외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과일의 경우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 과일이 동남아시아 및 일부 중남미 국가 위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자유 무역 협정의 결과 미국과 칠레로부터 오렌지와 포도 등의 수입이 두드러진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인해 미국, 오스

주요 수입 육류 및 유제품의 원산지(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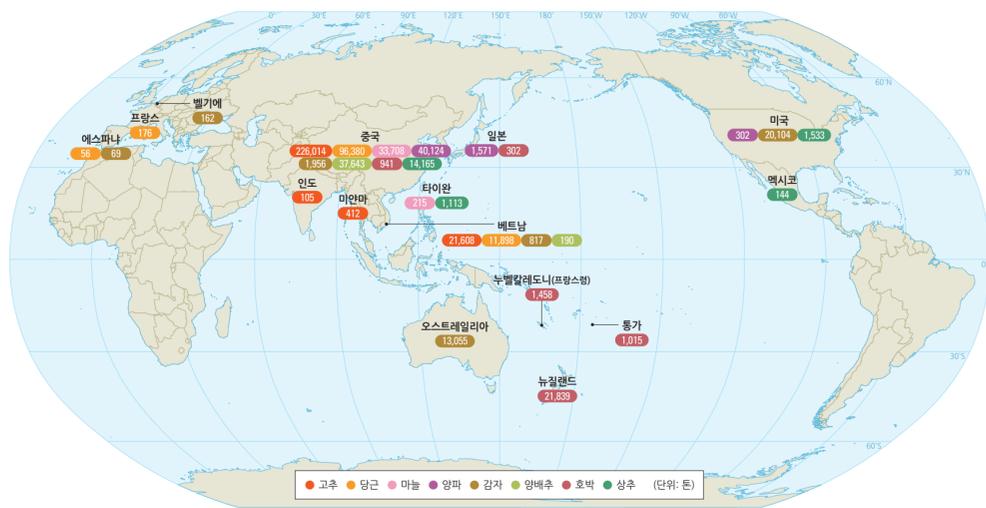
관세청(2020)

주요 수입 과일의 원산지(2020년)



관세청(2020)

주요 수입 채소의 원산지(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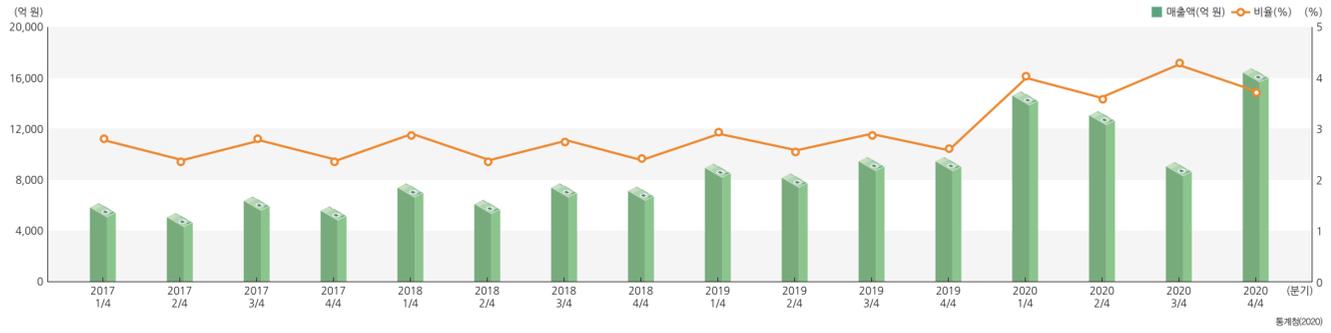


관세청(2020)

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의 국가로부터 쇠고기 등의 육류 수입이 많으며, 독일,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로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산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및 러시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노르웨이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채소류는 지리적 근접성 및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 중국산의 수입이 많으며, 품목에 따라 뉴질랜드의 호박,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감자 등의 수입이 두드러지며,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한 관세 혜택이 원산지 선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매출액 및 비율 변화(2017-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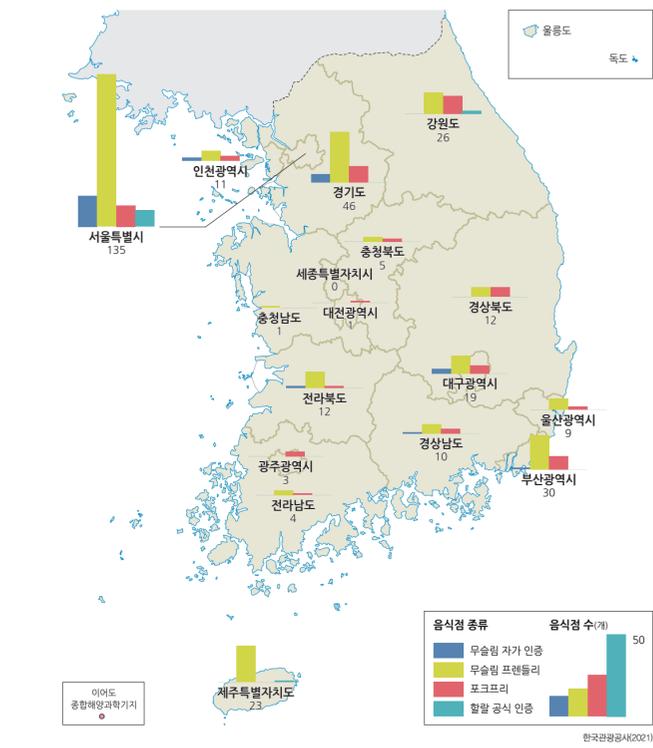


통계청(2020)

온라인 상거래는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식품 유통, 그중 농축수산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소비자들은 농축수산물을 주로 전통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였으나, 최근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하는 사업체 및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COVID-19 이후인 2020년 한 해 동안 이들 품목의 온라인 판매가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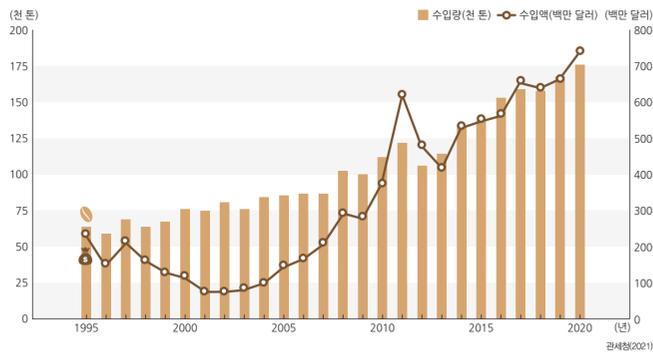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많은 음식점을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최근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관광객의 다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국내 이슬람 교도 거주자 및 방문객의 증가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를 시행하여 할랄 푸드 레스토랑 등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종류와 분포(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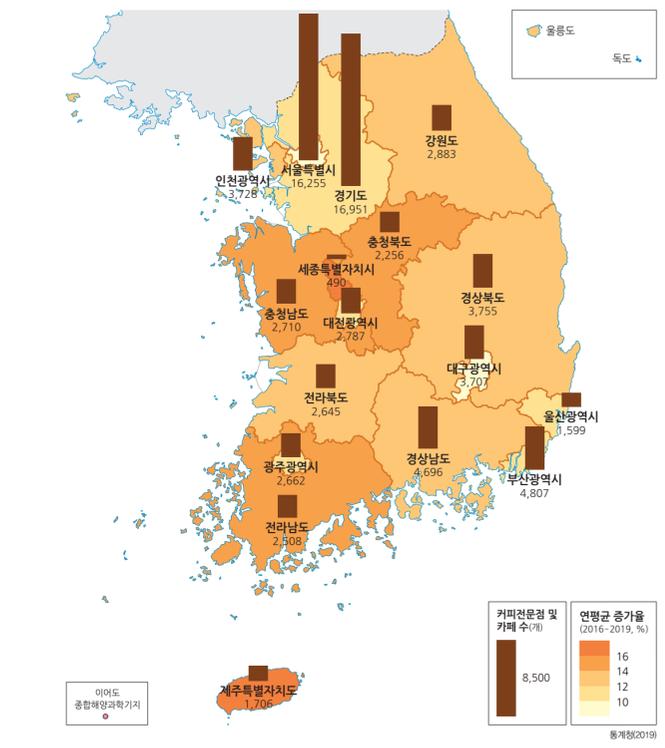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2021)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의 변화(199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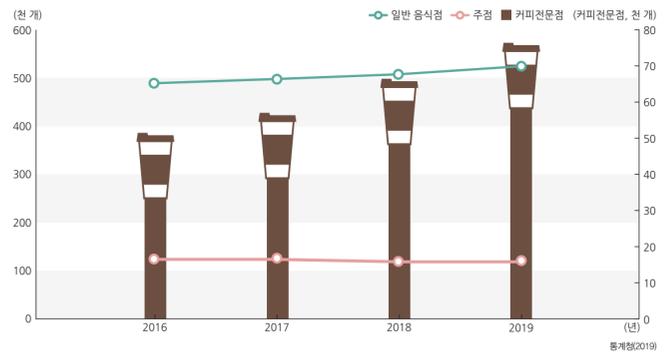
관세청(2021)

커피전문점 및 카페의 증가와 분포(2019년)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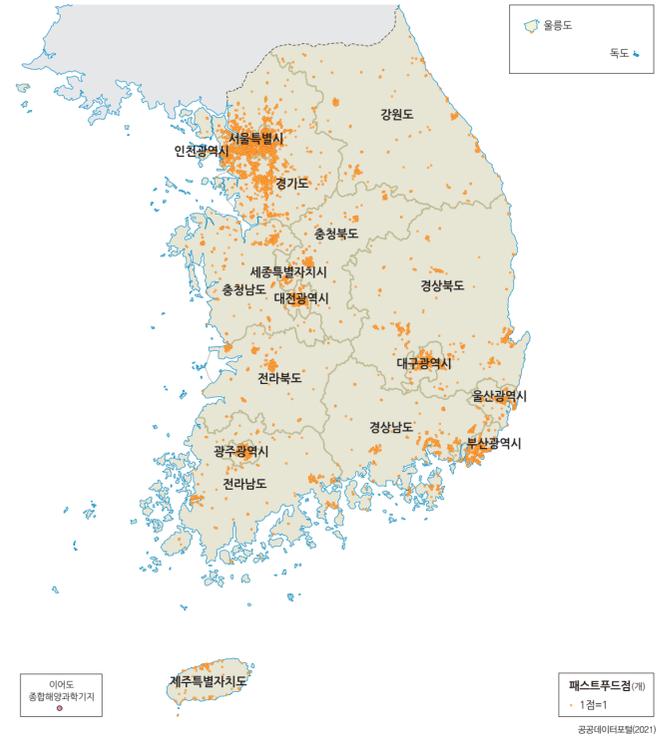
커피전문점 증가 추이(2016-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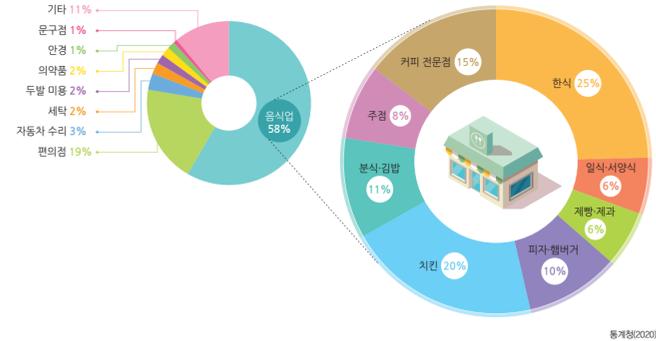
통계청(2019)

외식 문화의 증가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 음식점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음식점은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류 판매점, 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 판매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음식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음식점의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프

전국 패스트푸드점의 분포(2019년)



프랜차이즈 종류와 구성(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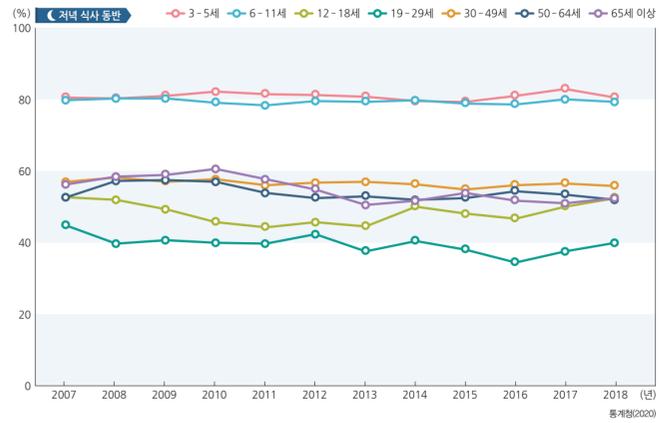


한국인의 음식 소비는 직접 조리하는 경우와 외식 중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유아를 제외하면 가족과의 저녁 식사 비율이 70%를 밑돌고, 젊은 세대일수록 아침을 소홀히 하고,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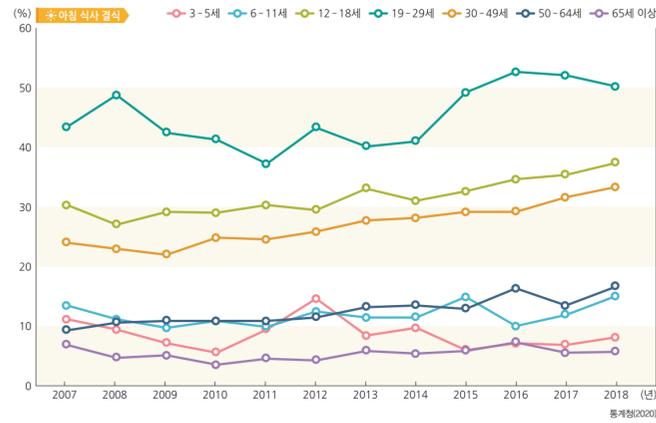
외식 문화 확산의 배경에는 주로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의 생활 양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의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방문, 배달, 포장을 불편하고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기 위해'의 비중도 높았다. COVID-19 이후인 2020년에는 업무상 회식을 위한 외식, 특히 포장 외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보내고 친목 모임을 하기 위해 음식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의 식료품 구매 및 소비 양상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까지는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구매력의 증가, 전반적 외식 문화의 발달, 빨라지는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한 외식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면,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COVID-19로 인한 외식 감소 등으로 밀키트 및 간편식의 증가, 간편한 음식의 가정 내 조리 및 배달 음식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음식 주문 및 배달을 돕는 모바일 기기 기반 플랫폼의 발달, 간편식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등으로 촉진되고 있다. 또한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밀키트를 주문 배송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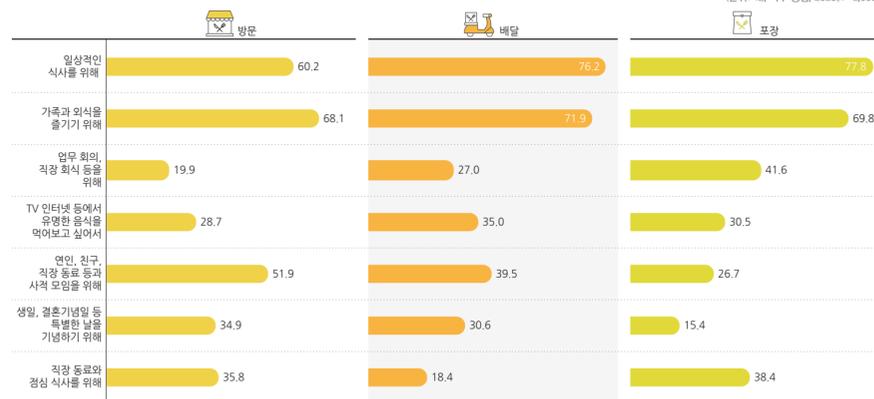
연령별 가족과의 식사 비율(200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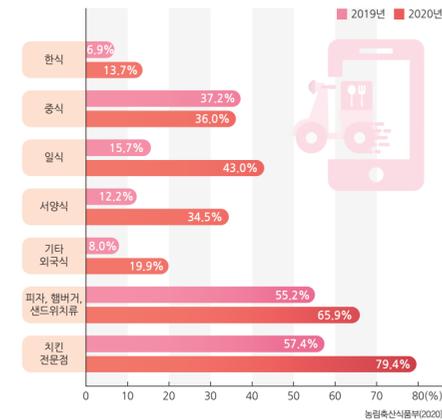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2007-2018년)



외식의 이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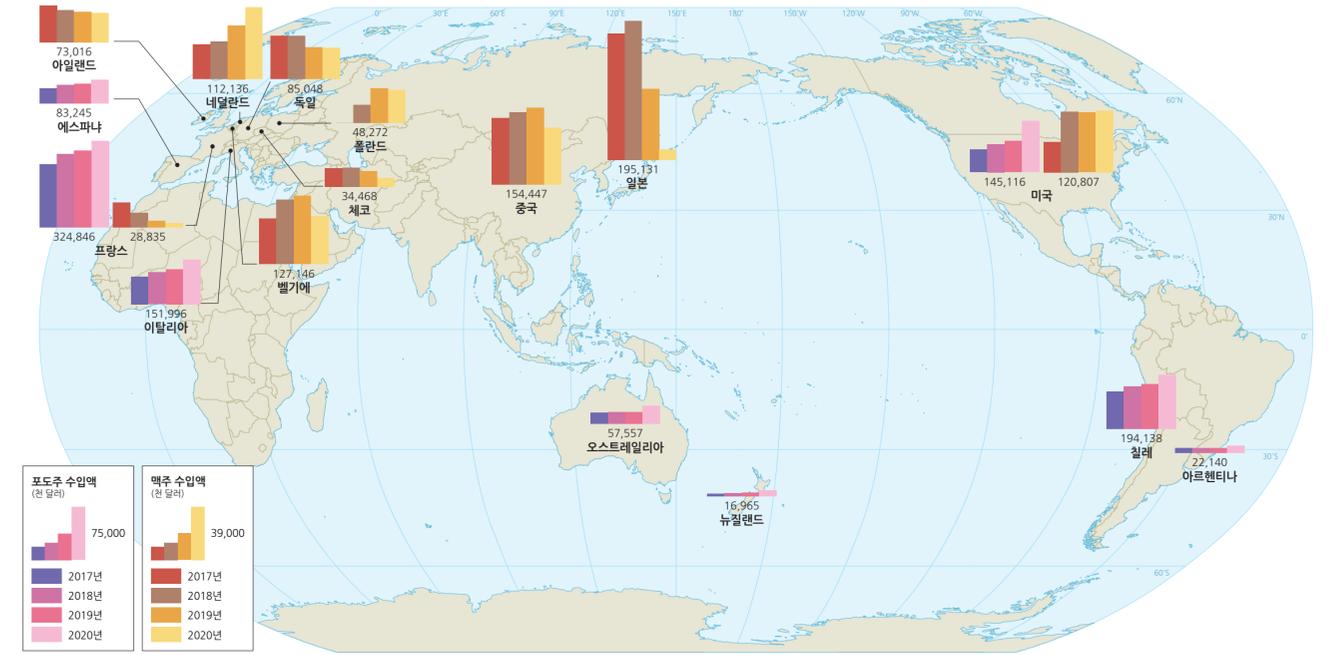


배달앱 사용 업체 비율 변화(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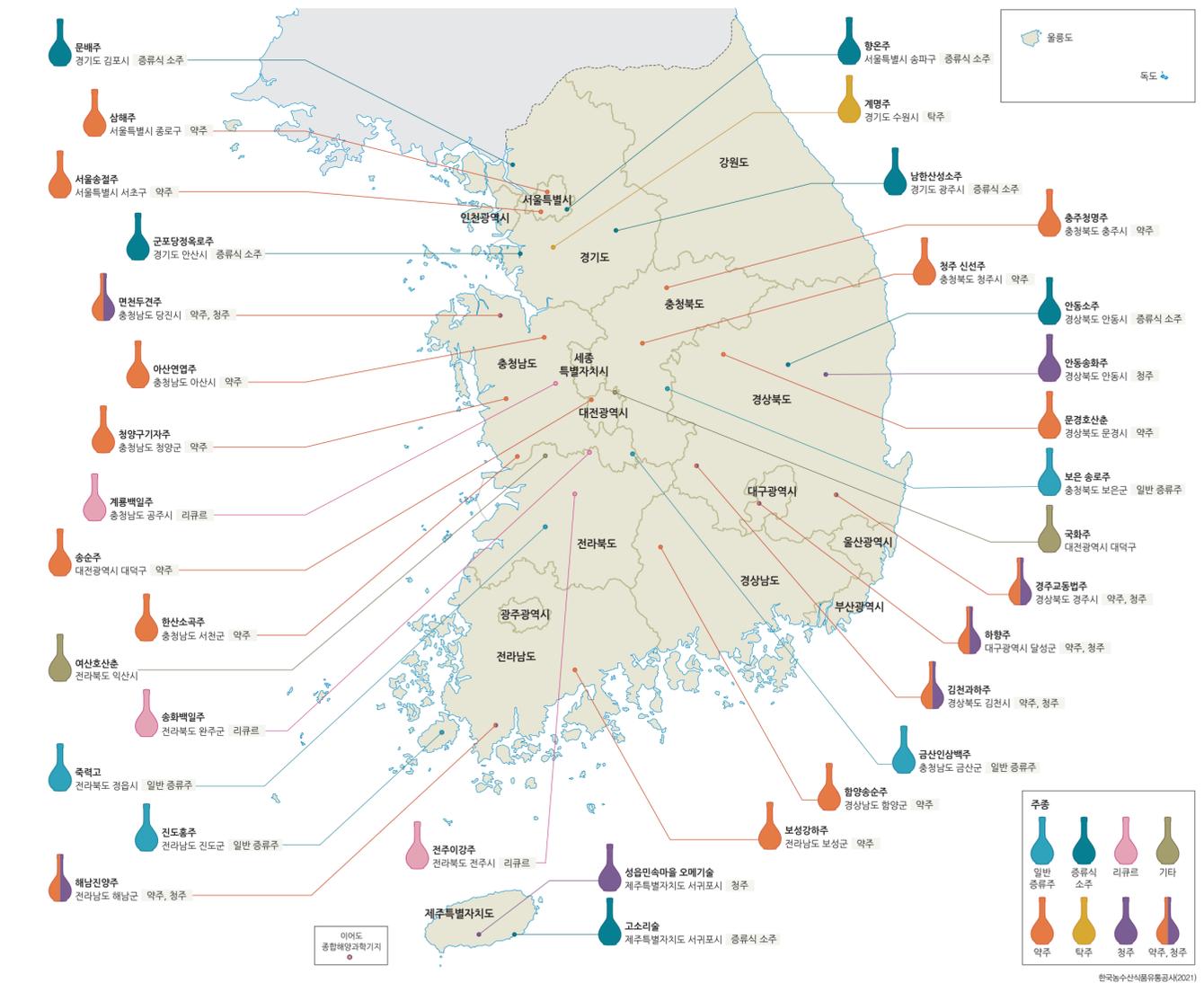


랜차이즈 음식점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브랜드 기획력과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다.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현대 한국 도시 경관의 특징이 되었다.

맥주 및 포도주 국가별 수입액 변화(2017-2020년)



한국 전통주 무형 문화재 보유자(2021년)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림축산식품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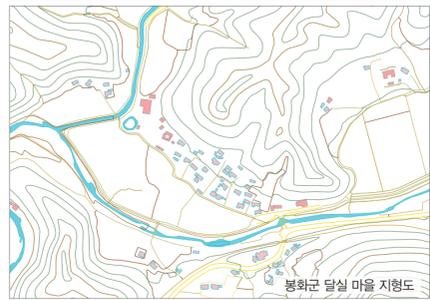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주거와 문화

전통적인 마을의 입지: 경북 봉화군 달실 마을



봉화군 달실 마을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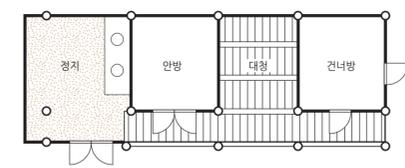
봉화군 달실 마을 지형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은 마을의 위치와 분포, 가옥의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의 위치는 뒤로는 산이 위치하고 앞으로는 넓은 들과 하천이 있는 배산임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많은 마을들이 구릉과 낮은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농업 위주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마을과 논밭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 뒤편의 산지는 땀과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제공해 주는 곳이었으며 겨울철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하였다. 마을 앞쪽의 개울이나 하천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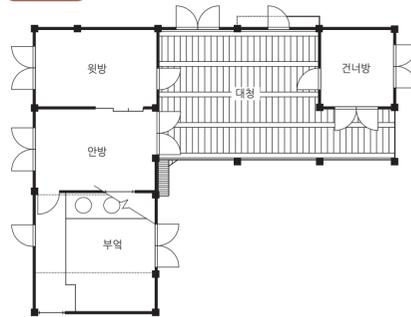
이러한 한국 전통 마을은 전국의 곳곳에 여전히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은 친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았고, 마을 내부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마을을 대표하는 고유의 건축물은 한옥이며, 오래 전에 지어진 한옥과 함께 근대 이후에 지어진 한옥도

전통 가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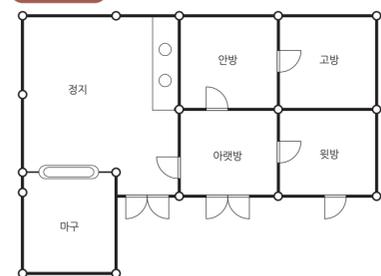
1자 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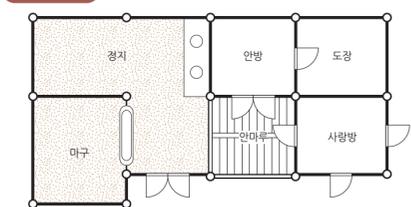
7자 올집



마루 없는 겹집



마루 있는 겹집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마을



아산 외업 마을



고성 왕곡 마을



순천 낙안읍성 마을



안동 하회 마을



제주 성읍 마을



경주 양동 마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대도시의 곳곳에서도 한옥 마을을 찾아볼 수 있다.

한옥은 한민족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어졌으며,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고유의 난방 기술과 통풍 방식 등을 한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옥은 대부분 나무를 사용한 목조 건축이며, 농촌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한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옥의 건축 양식을 응용한 현대적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신분 사회에서 집은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양반 계층의 대표적인 가옥인 기와집과 서민층의 주택인 초가집이 전통적인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신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옥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 가옥 모두는 기후와 인간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가옥 구조가 발달하였고, 덥고 습한 남부 지방은 공기의 순환을 최대화하는 대청마루 등이 발달해 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온돌과 같은 난방 구조도 한국의 전통 가옥의 특징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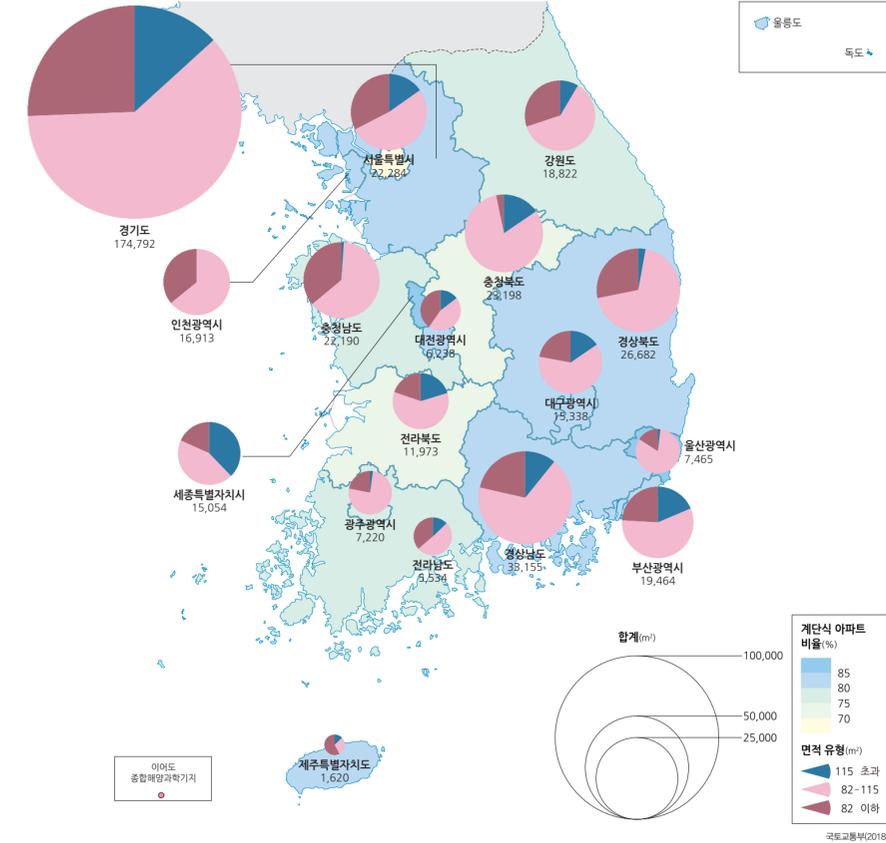


안동 양진당



고성 왕곡 마을의 민가

구조와 면적별 아파트의 분포(2018년)



아파트 구조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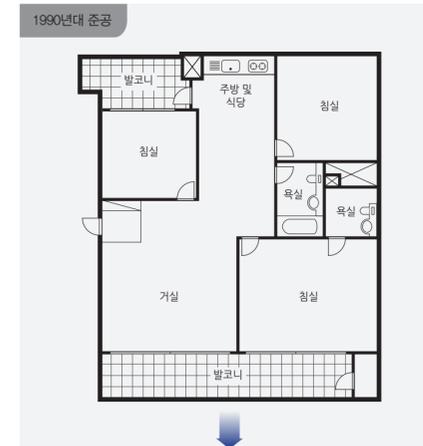
전용 면적 65㎡ 구조의 예



2010년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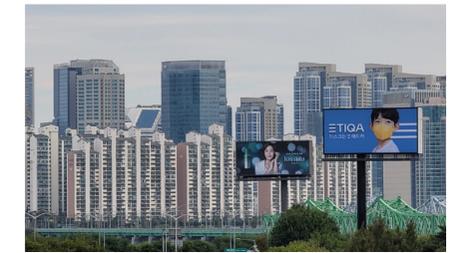
전용 면적 85㎡ 구조의 예



2010년대 준공



1970/2000년대 건축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0/2000/2010년대 건축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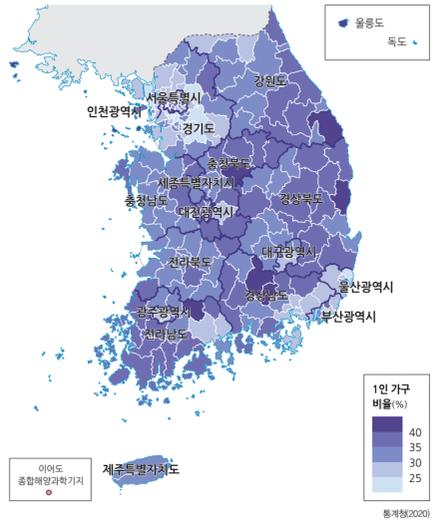


2010년대 건축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 도시 주거 양식의 대표적 유형은 아파트 거주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아파트가 1970년대 이후 건설되기 시작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건설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1990년 20% 초반이었던 총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2020년 약 63%에 이르렀다. 이러한 아파트의 면적을 살펴보면 다수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 기준 약 65㎡와 85㎡ 정도의 넓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국민 주택의 기준을 85㎡ 이내로 정하게 되었고, 이 넓이는 세계 핵력과 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국민 주택 규모'의 상한선이 되었다. 85㎡ 규모 아파트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파트의 구조가 되었다. 또한 65㎡ 규모의 아파트는 과거 방 2개와 욕실 1개 구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85㎡ 규모와 마찬가지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춘 형태로 변모하였다.

전용 면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지만 발코니의 확장 과 같이 전용 면적 이외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과 거실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아파트 공간 활용은 점차 다양화되었다. 또한 주차의 편의,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공동 주택이 가지는 공동 관리와 보안 등의 장점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도시적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노후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가용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의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특성상 개별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정비만으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수의 아파트들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2020년)



현대 한국인의 주거 양식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택은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독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과 여러 가구가 단독 주택 내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단독 주택은 일상 생활에서 농가 주택, 전원주택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여러 세대의 가구가 큰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소유하게 된다.

단독 주택의 경우 농촌 지역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 지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전원 주택 지구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 내부 단독 주택 밀집 지구의 상당수는 이미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거나 도시 재생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고층 아파트의 집중으로 인한 편의 시설, 교육 시설, 상업 시설 등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함에 따라 아파트는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의 주거 양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택지 지구의 상당수는 고층의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20년 기준 전체 1850만 가구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하면 현대 한국인의 78% 정도가 공동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 근교 혹은 농촌 중심지에도 다수의 공동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저층은 상업 시설로 고층은 주거 시설로 이용되는 초고층의 주상 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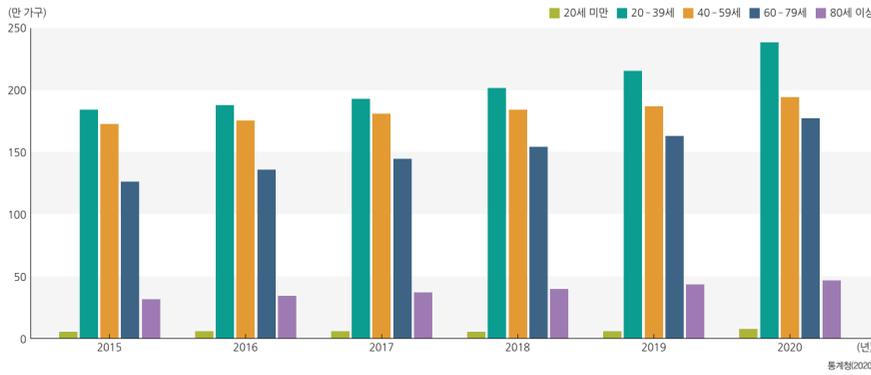
최근 주거 양식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1인 및 2-3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청년 및 서민 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한 소형 주택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 주택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도시형 생활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이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세대별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이 중 원룸형은 전용 면적 50㎡ 이하로, 30㎡ 미만의 경우 한 세대에 욕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30-50㎡의 경우 최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원래 낮에는 업무용으로, 밤에는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오피스텔의 가구당 주거 면적은 40㎡ 정도로 아파트의 가구당 주거 면적의 반 정도이지만, 가구당 거주하는 인원이 아파트의 반 정도로, 1인당 주거면적은 아파트와 비슷하다.

최근에 부각되는 임대 주택의 한 유형인 사회 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택, 즉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이 공급하는 임대 주택이며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2016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민간 및 공공 영역 모두에서 제공하는

1인 거주 및 세어 하우스 구조의 사례(역세권 청년주택)



1인 가구 비율 증가 현황(2015-2020년)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아외 체육 시설



아외 물놀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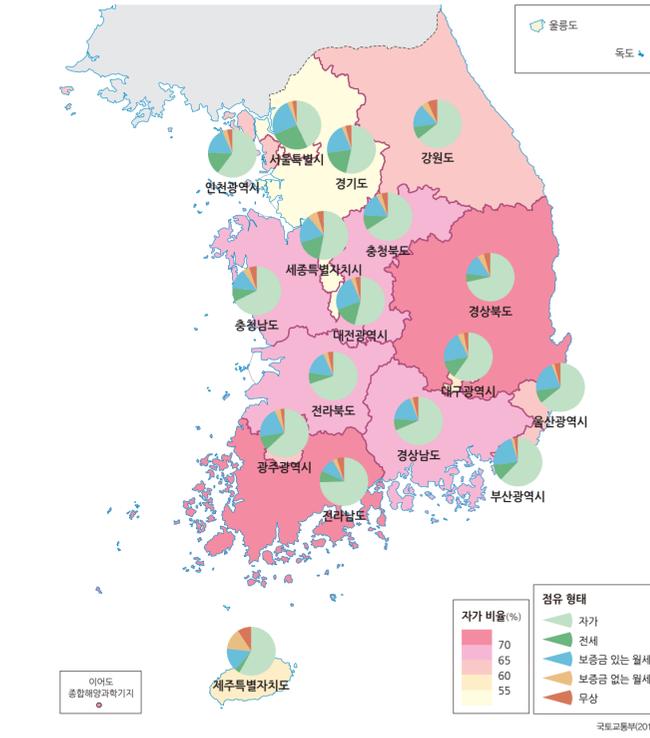
단지 내 정원과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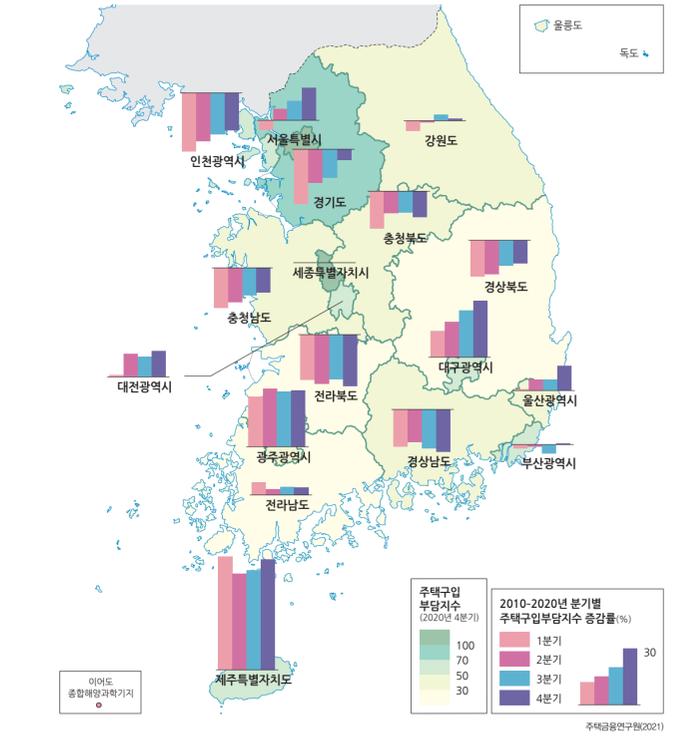
커뮤니티 센터

주택이다. 이 중 호텔 개조 청년주택은 도심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형식으로 2019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세대 주택은 최근 빌라라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의 밀집 지구는 미혼, 자녀가 없는 부부, 혹은 자녀가 취학 연령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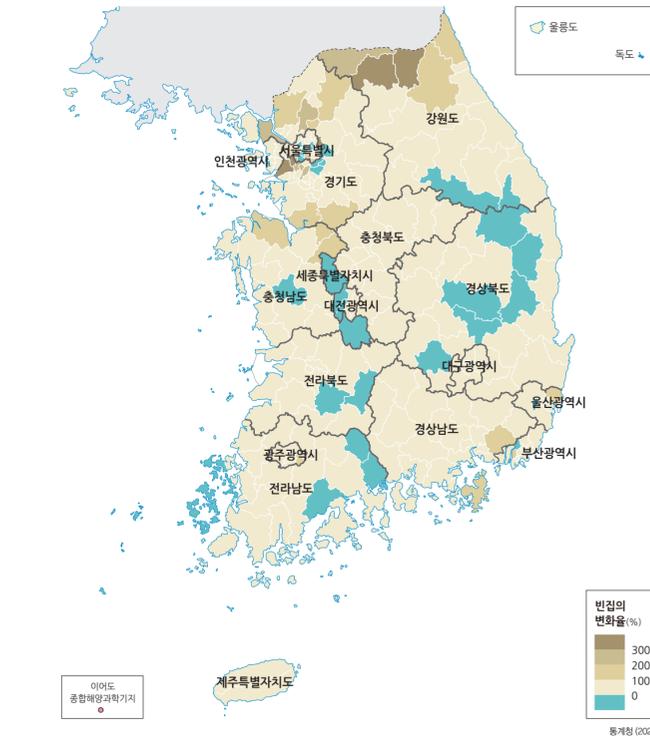
주택 점유 형태(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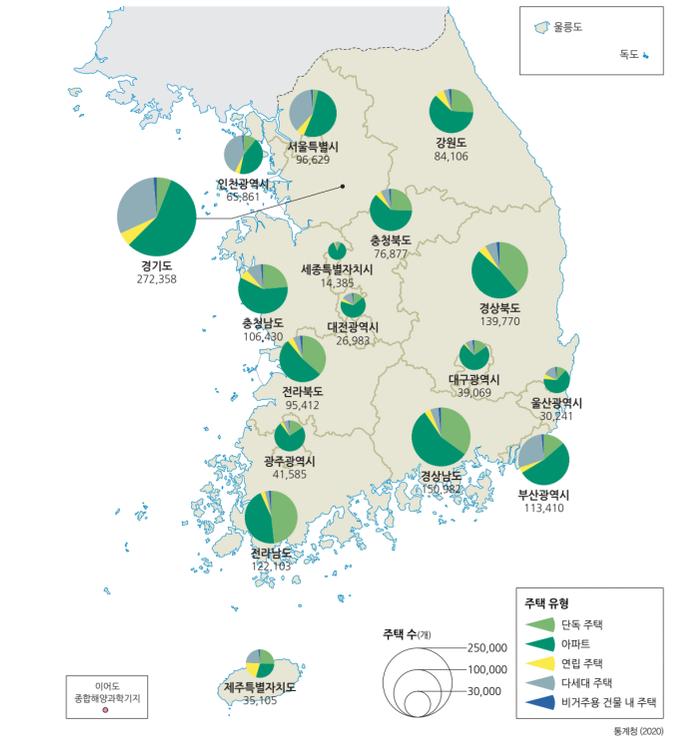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변화(2020년)



빈집의 변화율(2015-2020년)



빈집 유형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한국인에게 자가 주택 마련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중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근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택을 장만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과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 및 전·월세 가격은 대체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은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신혼부부, 청년 등이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임대료 규제 등의 주거 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한국의 주택에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빈집의 증가이다.

특히 전라남도, 제주도, 강원도 등의 빈집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빈집의 비율은 낮은 편이나 빈집의 호수는 많은 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2015-2020년 사이 빈집 증가율이 50%를 상회하였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